1998. 9. 15 창간

Vol. 215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2016
11



특집 사진으로 보는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성시화 춘천성시선교대회 소감문
선교 하나님의 도구 슬라브족의 나라 러시아!
인물 춘천CCC 대표 '안장렬 목사'
기관탐방 강원도의회 신우회 '오원일 도의장'
가정 유근완 장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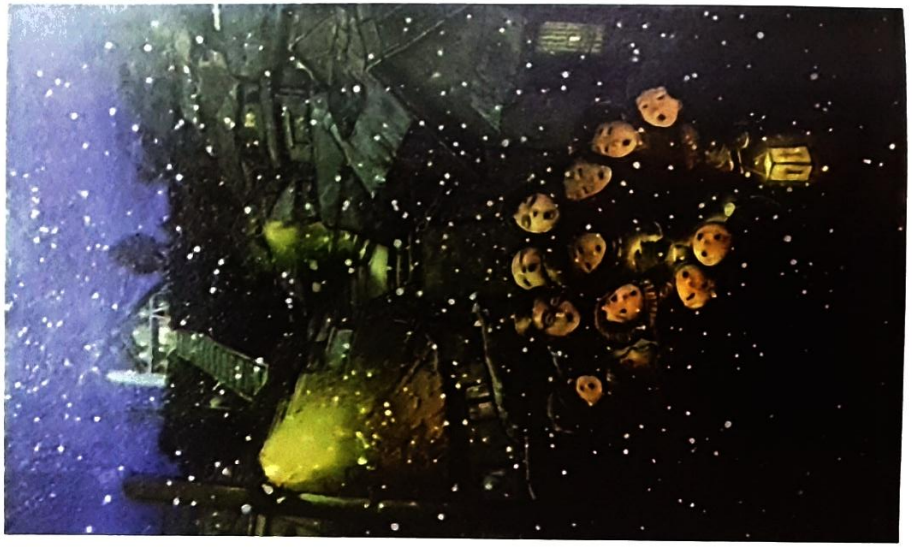
기쁘다 구주 오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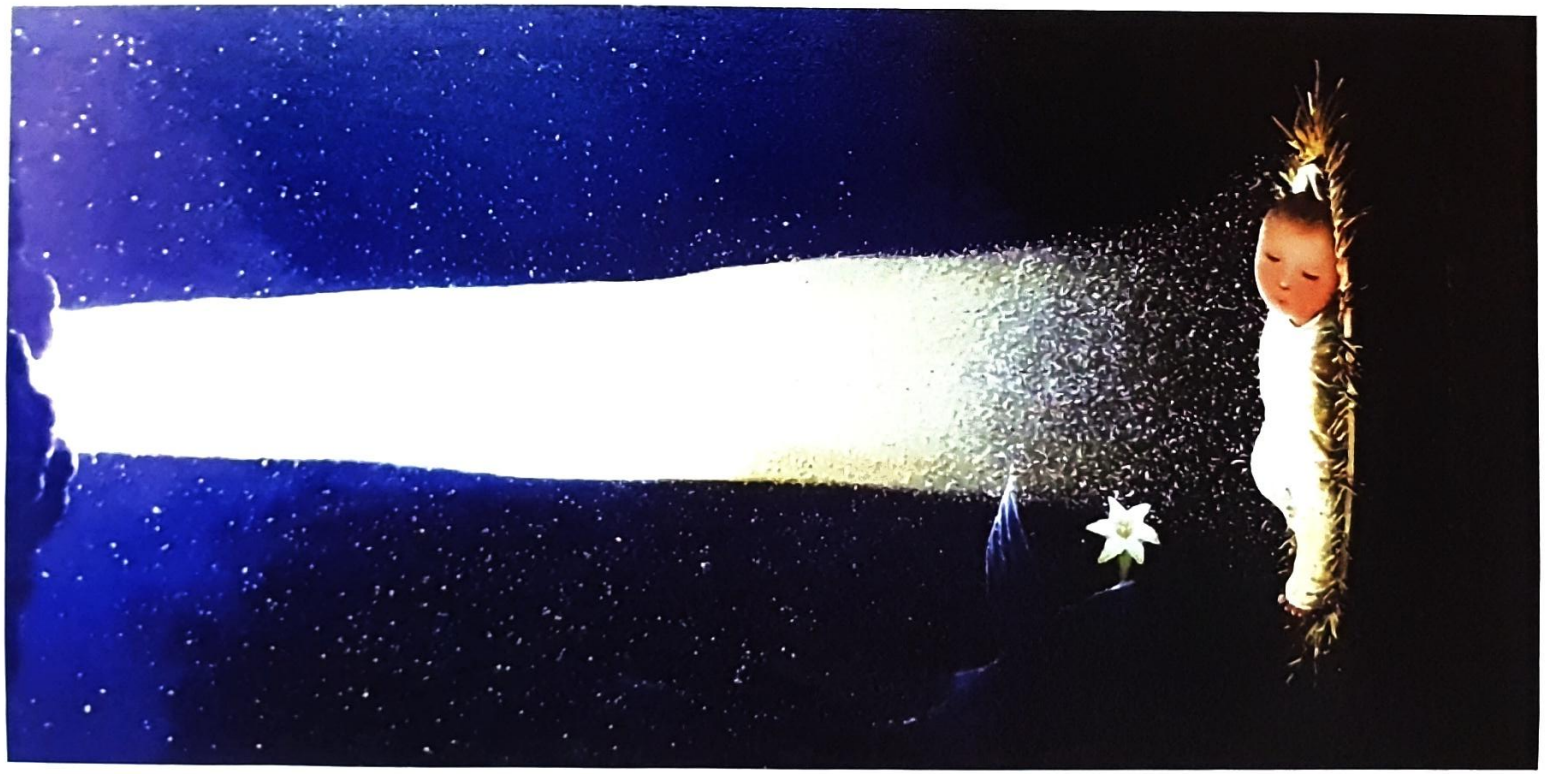
전 태 영 전

갤러리오르 (033.261.0695 춘천시 스무숲1길 16 (석사동))

2016. 11. 12 - 12. 10

갤러리 '오르'는 지역 예술인들을 후원합니다. 무료대관 리플렛과 현숙막 제공
(문의 노영식 관장 010 8477 3983)





갤러리오르 (스무숲 1길 16번지 한울성김교회 2층)



※ 스무숲 먹자골목 우성닭갈비 뒤

Cover Story



제1회 춘천기독미술영상공모전 초등부문 대상 수상작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니 갈라진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문지희 (남부초 6, 온누리교회)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연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CONTENTS

2016. 11
Vol. 215







커버스토리		01
Editor's Note		03
11월 캘린더		04
특집	사진으로 보는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07
성시화	춘천성시선교대회 소감문	13
선교	하나님의 도구 슬라브족의 나라 러시아!	15
통일	쥬빌리 58차 춘천모임	18
시사	한국교육자선교회	20
예수안에서 본 예술	골리앗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23
기획	익숙한 추수감사절, 생각해보는 추수감사절	24
예향/만평		27
종교개혁	여기 제가 서있습니다	28
시	볼로그다 가는 길	33
인물	춘천CCC 대표 '안장렬 목사'	34
기관탐방	강원도의회 신우회 '오원일 도의장'	38
가정	4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정이야기 '유근완 장로'	42
설교	채움이 아닌 비움	46
칼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자	48
영화이야기	'부활'	50
건강이야기	중독이란 무엇인가?	52
알려드려요		54
10월을 돌아보며		56
음악산책	프리츠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59
후원자명단		60

Editor's Note

가끔 화면을 통해 파도타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노라면 아슬아슬하게 파도 사이를 헤치며 때론 거대한 파도를 등지고 파도타기를 즐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스릴만점이다. 나는 한 번도 파도타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파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내 파도 속으로 곤두박질하고 만다. 균형을 잡아야 파도타기가 즐겁지 균형을 잡기 전까지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실수를 반복하며 훈련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균형 잡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신의 힘이 아닌 거대한 파도의 힘과 에너지를 이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상되는 파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파도가 늘 일어난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기려면 파도타기를 잘 해야 되고, 파도타기를 즐기려면 균형을 잡힌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균형 잡힌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균형 잡힌 지도자, 균형 잡힌 공동체,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를 얼마나 기대하는가? 그 이유는 균형이 잡히면 쉽게 쓰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정도를 걷게 된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갈팡질팡하지만 균형이 잡히면 앞으로 전진 한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힘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얼마나 균형이 필요한지 모른다. 정치판의 보수와 진보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극단적인 대립뿐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연합을 해치고 있다. 중심을 잡는 중도가 필요하다. 균형을 잡는 다는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다. 교회가 힘을 써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 본질에 중심을 잡고서야 하는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자. 깨어진 균형을 바로 잡고 서로 서로 도와 균형 잡기에 힘쓰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균형을 이루어 가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파도보다 더 큰 파도가 닥쳐와도 춘천의 모든 교회가 함께 파도타기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를 기대한다.

편집장 최영조

2016 11

· 이달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105:1

· 이달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운데 제헌국회(1948. 5. 31, 이윤영목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간구하오니 주여, 대한민국이 복음의 제사장나라가(출19:6) 되어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성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조선시대가 당파싸움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온 국민이 진보와 보수라는 견고한 프레임에 갇혀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과 북, 보혁간,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노사간의 모든 갈등을 주안에서 극복하고 평화(샬롬)한국의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LORD'S DAY	MONDAY	TUESDAY
		1 •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 춘천지회 사무실 • 화요 통일 기도모임 매주 오후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매주 저녁 7시, 동부교회 소예배실 • 한국교육자선교회 춘천지회 저녁 7시, 주향교회
6	**7** • 홀리클럽 임원회의 오전 11시, 석사교회	**8** • IVF 제272차 정기이사회 춘천 IVF 회관
13 •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신 • 구회장 이취임식 오후 3시, 순복음춘천교회	**14** • 쥬빌리 59차 춘천모임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15**
20 • 추수감사절	**21**	**22**
27	**28**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29** •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 종강 및 크리스마스전도강습회 오전 10시, 오후 7시 춘천지회 사무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 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 오후 2시, 사암교회 • IVF 강원지역 연합간사 모임 원주 IVF회관	**3** • 기드온 캠프 강원대학교 성경반포 8-9시 캠퍼스 각 출입구 •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 전형위원회의 순복음춘천교회	**4** • 기드온 캠프 조찬기도회 매주 오전 7시, 미가	**5** • 춘천에벤에셀 청소년집회 오후 2시, 주향교회 하흥수 전도사
9 • IVF 캠퍼스사역위원회 춘천 IVF 회관	**10** • IVF ~11일 미션얼 in 춘천 (알려드려요 참조)	**11**	**12** • 기드온 캠프 중부지역 오전 11시, 서울본부 • IVF 60주년 정기총회
16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016년 정기총회	**17**	**18**	**19**
23	**24**	**25** • IVF 연합리더모임 춘천 IVF 회관	**26** • 춘천홀리클럽 총회 오후4시, 신성감리교회
30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사진으로 보는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10월3일(월)~8일(토), 온누리교회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9월26~30일) 오전6시30분에 대회장소인 온누리 교회에서 임원 목사님과 장로님의 준비기도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회가 되기를 간구하는 통성기도소리는 매 아침마다 교회에 울려 퍼졌고, 준비기도제목이 교회마다 배포되어 각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기도를 올려 드렸다.







10. 3 (월) 저녁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

목사장로기도회가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라는 주제로 대회 첫날 월요일 저녁에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의 문을 열었다. 춘천에는 목사기도회가 매주 모이는 여러 개의 기도모임이 있다. 또 장로기도회도 매달 정기적인 기도회로 갖고 있으나, 공식적인 연합 기도회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금번 목사장로기도회에는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춘천을 대표하여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기억하며, 춘천교회와 맡겨진 사명을 위해 회개와 간절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은 마침 귀국하신, 본 매거진 종교개혁란 원고를 연재하고 계시는 김현배 목사(베를린비전교회, 유럽성시화운동본부)께서 강사로 섬겨 주셨다.

10. 4 (화) 오전 · 저녁

사모기도회와 어머니기도회 개최

사모기도회와 어머니기도회도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사모기도회는 "사모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사모합창단이 주축이 되었고, 어머니기도회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로 어머니학교가 주축이 되어 열렸다. 기도회 강사로는 윤정희사모(강릉아산병원 원목사모)가 10명 아이를 입양하여 키운 간증을 통해 사모와 어머니에게 큰 도전의 시간을 주었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참석한 사모님과 어머니들은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주었다.









10. 3 (월) 오전, 10.5 (수) 오전

근현대사세미나와 4/14 윈도우 지역세미나 개최

2016년 본 대회에서는 근현대사세미나와 4/14 윈도우 지역세미나를 열었다. 근현대사세미나는 오늘날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왜곡에 대해 바로 잡아주는 세미나로 강사는 김재동목사(하늘교회, 나라사랑후원회 공동대표)였다. 4/14 윈도우 지역세미나는 "다음세대와 미디어 선용방법 제시"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문화의 문제점과 기독교적 대안, 교육현장에서 본 위기와 영적 대안등 안종배교수(한세대학교)외 7분의 강의가 4/14 윈도우한국연합 주최로 있었다.



10. 5(수) - 7(금) 오전 · 저녁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집회와 전도훈련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저녁 전도집회와 오전 전도훈련이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주제로 주강사이신 김두식 목사님의 강의로 있었다. 강사이신 김두식 목사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으라!고 꺼내신 마패를 보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는 모션도 하면서, 어명을 순종하여 역적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전도훈련 시간이었는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피켓전도와 노방전도의 실제적인 노하우를 전수 받는 시간이 되었다.

















10. 7(금) 저녁

블레싱 춘천

금요철야로 가진 블레싱 춘천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모든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과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생을 위한 기도회는 김마태전도사(어린이전도협회)의 인도와 청소년을 위한 기도회는 박진용간사(예스컴)의 인도, 청년 대학생을 위한 기도회는 연합선교단체의 인도, 직장선교를 위한 기도회는 이인균장로(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채한성 음악감독의 인도로 대회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10. 8(토) 오후

제2회 홀리바이크 평화대행진

작년에 이어 제2회로 개최하고자 했던 홀리바이크 평화대행진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자전거 노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되어 아쉬운 마음이었으나, 대회를 개최한 춘천기관장모임에서는 대행진을 위해 모금된 성기문장로(전 춘천법원장)의 후원을 포함한 후원금으로 강원도장애인복지관과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에 각 1백만원씩 후원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였다.

이외에도 영화상영 "신은 죽지 않았다2"가 있었다. 본 대회에서는 처음 가진 직분자 연합기도회가 새로운 의미가 되었고, 성시화의 모토인 "전도"에 집중하여 열린 집회는 교회마다 적극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 현재 춘천 시내를 지나다보면 여러 곳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제1회 춘천기독미술영상 공모전 시상식

다음세대가 성시화운동에 관심과 참여를 갖게 하기 위해 기획되어 40여일 작품을 공모한 제1회 춘천기독미술영상공모전에서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어 풍성한 공모전이 되었다. 강원기독미술인협회 주관으로 성경이야기와 통일을 주제로 한 미술공모전은 54건, 선교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상공모전에서는 2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시상식은 블레싱 춘천 시간에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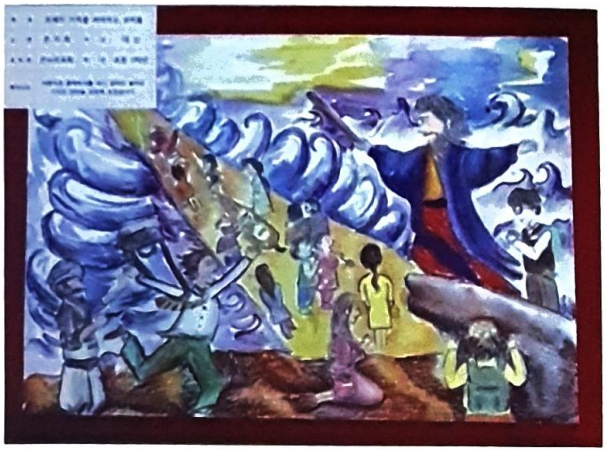




취재 편집부

제1회 춘천기독미술영상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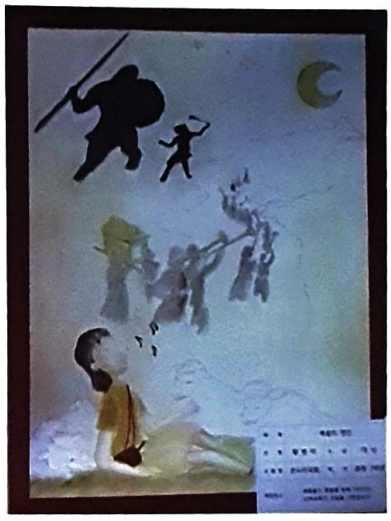
■ 미술부문 (성경이야기, 통일이야기)



· 초등학생 - 대 상

문지희 (남부초 6, 온누리교회)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니 갈라진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 중학생 - 대상

황병하 (남춘천중3, 온누리교회)

복음들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최우수상

임채린 (강원중3, 온누리교회)

최우수상

박해민 (동춘천초4, 춘천그리스도의교회)

박예준 (만천초2,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우수상

박예은 (만천초4, 춘천그리스도의 교회)

성수안 (신동초3, 주향교회)

문정현 (남부초3, 온누리교회)

최종현 (교대부설초3, 온누리교회)

금상

이시온 (봄내초5, 온누리교회)

한수민 (호반초5, 온누리교회)

은상

류다영 (호반초3, 호산나교회)

서예은 (우석초5, 광염교회)

한윤이 (상천초4, 순복음춘천교회)

특선

특선에는 이하린(소양초6, 주향교회)외 8명이고, 입선은 모두 31명이다

■ 영상부문 (선교이야기, 자유주제)

· 청년 - 최우수상

경계에 선 유두고 (손준호 간사 IVF)

현재 대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불투명한 미래를 가진 경계에 선 유두고 같으나 신앙을 가지고 극복해 낼 그들을 기대감을 갖고 응원해주기를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 청년 - 우수상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이야기

(남수진 학생 OOC)

아프리카 잠비아 단기선교 이야기로 현지 학생들을 리더로 세우는 훈련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글/ 회장 이인균 장로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강원대학교, 춘천제일감리교회)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중 금요철야로 열린 블레싱 춘천 시간에 직장선교연합회 회원들과 참여하여 특별찬양을 드리고, 또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를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선교회가 활발히 일어났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직장마다 일어나기를, 직장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제목을 나누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세대들과 연합된 기도시간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는 오랜만에 맛보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선교회원의 가정 복음화와 직장과 일터에서 성경적인 확고한 직업관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모든 직장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립당시(1990년 4월 17일)에는 소수의 직장선교회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50여개의 직장선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50~80여명 회원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낮 12시에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에서 월별 주관 직장선교회를 통해 정오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는 동부교회 여전도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선교를 위해 미자립교회 또는 농촌교회 목회자로 매월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직장선교회 부흥을 위해 잃은 양과 직장선교회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변하는 사회와 직장환경으로 복음 전도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눅 들지 않고 힘차고 담대하게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직장 선교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춘천 복음화와 춘천성시를 이뤄가는 든든한 초석의 주인공이 되는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우리는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글/ 박진용 간사(예스컴)

할렐루야! '청소년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의 걸음 – 예스컴' 의 박진용간사입니다. 성시선교대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향해 같은 꿈을 꾸며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번 성시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성회였습니다. 모일 때 마다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들과,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와 재 헌신을 다짐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단이 매우 귀한 대회였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다음세대를 향해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그곳에 있는 사명자 들을 단위에 세워 뜨겁게 중보 할 때에는, 강권적으로 기름부으시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회중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음세대를 향한 부정적인 선교보고들

속에 자칫 낙망하기 쉬운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무뎌진 영성을 날카롭게 벼리시며 지친 소명자들을 약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감명 깊은 사실은 하나님은 다음세대의 부흥에 대해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 모두에게 단호하며 생기 있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1:7~8) 아멘! 우리는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성시선교대회 이후의 오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더욱 성실하게 달음질 하겠습니다.

전도훈련을 받고 피켓전도에 나서다

글/ 최계화 집사(온누리교회)

44주년 춘천성시선교대회에서 전도훈련을 받고 곧바로 4인 1조 팀으로 피켓을 들고 현장전도에 나섰다.

(역할 1) :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역할 2) :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역할 3) : 가까운 온누리 교회로 나오세요

(역할 4) : 따뜻한 차 한 잔 하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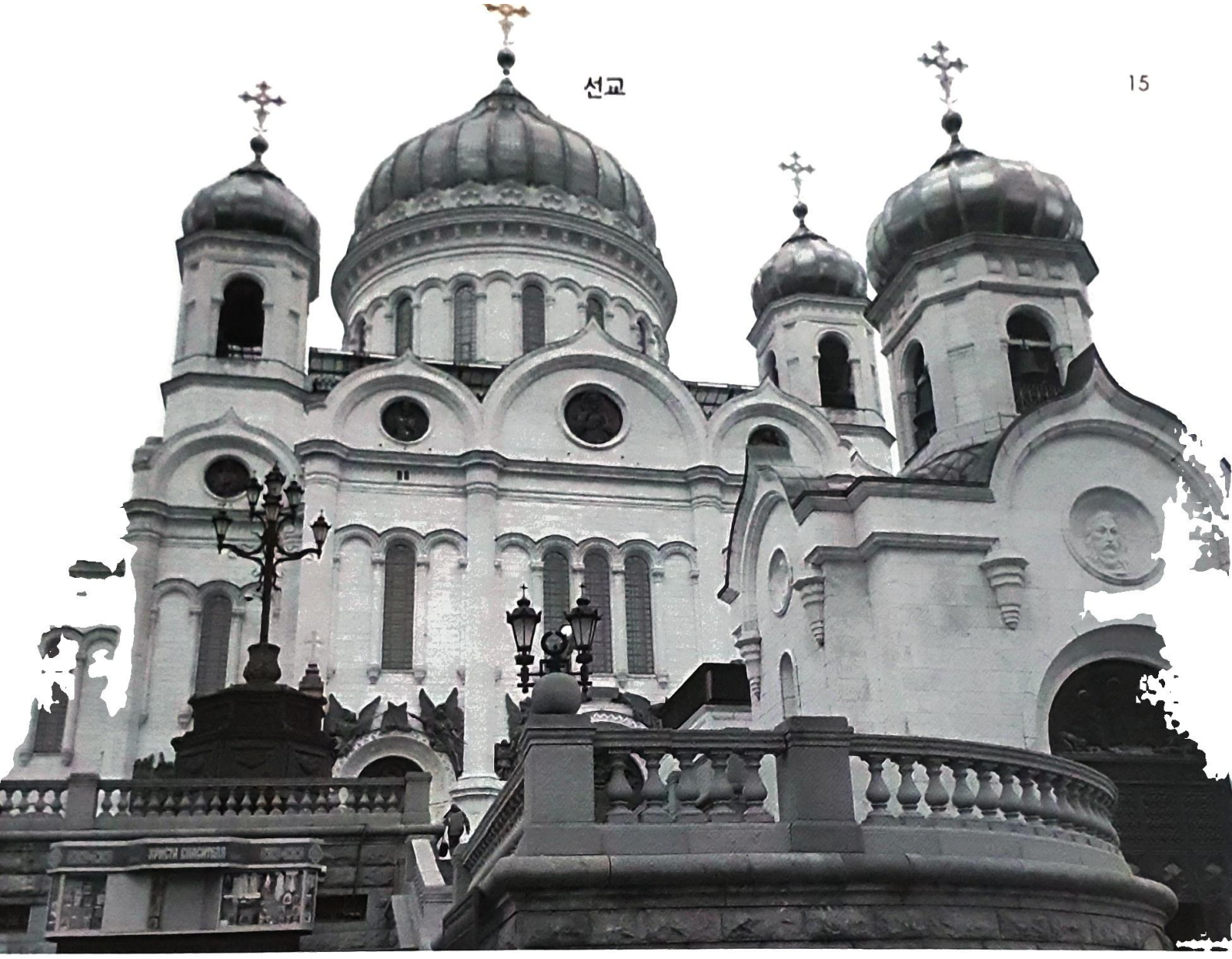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포스코 아파트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성을 담아 외쳤다.

'눈길을 애써 외면해가며 지나가는 사람, 미소만 짓고 그냥 가는 사람, 신호대기 중인 차 안에서 곁눈질로 살피다가 창문을 올리는 사람, 딱 한번 차 안에서 '할렐루야!' 하며 엄지손을 치켜 올려준 사람,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건네주는 전도용 건빵을 몸에 닿지도 못하게 손사래를 치며 지나가는 사람 등등...'

절망과 슬픔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참 평안이 없이 살아간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그 동안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언젠가 내 삶의 관계를 통해 전도하겠다고 했던 안일한 생각이 게으른 불순종이란 걸 알았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해 외쳐야겠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생기가 전달되어서 춘천 도성에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가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길 소망하며 힘차게 외치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

하나님의 도구 슬라브족의 나라 러시아!

글 정덕현 목사 (푸른초장교회, 한아름선교회)

러시아의 행정구역은 2개 시, 21개 공화국, 46개 주, 9개 지방, 4개 자치구, 1개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선교사님께 들은 기억으로는 러시아는 약 160개 종족이 살고 있는 연방국가이고 구소련 CIS지역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민족과 나라와 인구가 있다. 각자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민족과 인구가 단 하나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선교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대평원을 지나 우랄 알타이산맥을 넘어 모스크바와 칼미크(깔므끼)공화국까지 아시아와 유럽이 한 나라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완전히 묶여있다.



2



3



4

1 모스크바강 다리 위에서 찍은 러시아정교회 건물입니다.
2 맑스의 동상입니다.
3 러시아 우주박물관 앞에서 찍은 우주공원과 로켓발사 형상탑입니다.
4 러시아국립중앙도서관 앞 도스코예프스키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동석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선교사는 한 사람이 여러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 러시아를 공략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하나님의 선교전략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러시아를 선교적 전략요충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실제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구원이 하나님의 심중이라고 믿기에 이스라엘 선교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선교를 이룰 수 있을까?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국내법과 정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이 구원할 수 있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

조동석선교사님은 영주권과 비자 문제로 두 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문 적이 있다. 그 동안 그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교제를 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바로 러시아어에 능통한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다. 이른바 메시아닉쥬들이다. 러시아에는 고대 바벨론 포로기에 유입된 산악유대인과 18세기말(1770년대) 동유럽에서 제정러시아 남서부로 이주하는 아슈케나짐들이 있다. 이 유대인들이 제정러시아의 신민이 되고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데 칼 맑스와 레닌 그리고 트로츠키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황제측과 사회주의 혁명가측 모두에게 적이 되어 최악의 박해를 받는다. 유대인들은 전 유럽과 러시아에서 상상초월의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 시온주의가 우크라이나에서 레프 핀스커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었고 나중에 오스트리아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츨의 시오니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고 이 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현재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약 30%에 달할 정도여서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러시아정교회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도상의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메시아닉쥬가 되게 하신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유대인 박해지 러시아가 이스라엘 선교의 못자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선교전략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선교적인 전략도 그에 맞추어 가야 할 것이다. 선교의 궁극적 요충지인 러시아는 보다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요즘은 북한 선교에도 러시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사명감을 심어주고 남한으로 들어왔다. 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조국의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 때 거기에서 사용된다면 그 또한 대단한 일이다. 잠깐 동안의 러시아 여행이었지만, 너무나 큰 감동과 감상이 있었다. 모스크바와 러시아 여행 감상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러시아를 여행하게 하신 뜻을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 첫째가 아닐까한다.

스파시비(спаси́бо)!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제58차 춘천모임(10월 10일, 주향교회)강의를 정리합니다.

사도바울과 민족사랑

(롬 9:1-3)

정종기 목사
(한국기독교통일포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네 가지 관점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적 관점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인 동족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형제 사상이다. 그가 로마에 끌려가 구금상태였을 때도 유대인을 불러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다.(행28장) 이와 같이 북한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가족이다.

해방 후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북한에는 3,040개의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는 800개의 교회가 있었다. 1.4후퇴이후 남한은 1,200교회가 되었다. 북한에서 넘어온 대다수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남한이 지금 이렇게 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북한 성도의 땀과 수고 헌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도 죽기 전에 한번 가보게 하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라며 혈육이 있는 고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에 강의하러 갔는데, 조총련 사람과 대

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다. 조총련 기자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나라는 남한, 북한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조국 하나만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 당시 여권을 만들려면 남한과 북한 중 선택해야 했는데, 자기 이모가 북한에 있고, 자신의 고향이 북한이기에 북한 국적으로 냈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오해한 부분이 많다.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인지 알았다. 그러나 내 골육 내 가족이 있기에 선택했다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갔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루에 12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한 탈북자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읽다보니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넣으면 되겠네! 하며 내가 살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다시 만났는데, 다윗이란 이름을 지었고,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생명의 떡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 후 그는 발각되어 공개처형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 가족이기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전하고자 목숨 걸고 들어갔던 것이다. 사도바울의 마음이다.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화해와 용서의 관점

성경에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한 사람은 창45장에 나오는 요셉이다. 형들의 버림을 받아 우여곡절 후 총리가 되었다.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와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형들이 두려움에 찾아왔을 때에도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다.(창50장)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는 것이다.

남은 자의 관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라고 하셨고(사6:13),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들의 희망이었으나 이세벨에 쫓기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남긴 7천이 있다고 하셨다.(왕상19:18) 이와 같이 북한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남북한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성경, 찬송을 다 잃어도 머릿속에 암기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며 버티고 있다. 주님이 역사 하시는 날, 남북한이 하나 될 때 그들이 손들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선교적인 관점

마28:18-20과 행1:8의 말씀처럼 북한이 사마리아라면 사마리아까지, 땅 끝이라고 한다면 땅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북한에 갈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하나님 불러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불러낸 사람이 우리 곁에 3만여명이 있다. 우리도 눈길 안주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된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겠는가?

탈북민 중에서 발제한 내용이 있는데, 중국에 나와 있는 재중 탈북민이 낳은 자녀들 문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돌봐야 할 소외된 부분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그들이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학교를 맡기셨다!

한국교육자선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강원지방회의 태동

한국교육자선교회(이하 한교선)는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는 귀한 표어 아래 1978년 창립되어, 38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국 3만여 명의 믿음의 교육자들이 소중하게 가꾸어온 초교파적인 선교회입니다.

과거 강원도내 기독교사들도 한교선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모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선생님의 오랜 시간의 눈물의 기도응답으로 많은 분들의기도와 후원이 모아졌고, 결국 2015년 1월 원주에서 열렸던 제72차 한교선 전국 겨울연찬회에 알음알음으로 50여명의 강원도 지역의 기독교사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의 학교와 다음세대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받게 되었고, 불과 20일도 되지 않아 강원지방회가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선로 위로 고속질주하다

한교선 강원지방회는 창립 이후 마치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선로 위를 달리듯 빠른 속도로 전진해나갔습니다. 창립 2주 뒤에 임원회와 기도모임을 열어 구체적인 선교방향을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창립한지 1달 만에 강릉·동해·삼척 지역을 연합시켜 영동지역회를 창립하게 해주셨고, 기독교 육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낀 CBS에서 영동지역 회장님을 초청하여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제1회 강원지방회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이 연찬회에 참석하셨던 원주지역의 한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자로서 뜨거운 사명감을 회복하게 되시면서 8월에는 원주지역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016년은 창공을 나는 알바트로스처럼 고공비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3월 철원지역회 창립을 시작으로, 6월 홍천지역회 창립, 그리고 11월 1일 춘천지역회 창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화천지역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 한교선 강원지방회 안에 총 9개의 지역회(영동북부, 영동, 원주, 철원, 홍천, 춘천, 화천, 영서북부, 영서남부)가 세워져 선교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유·특·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160여명이 도내 14개 시·군(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홍천, 화천, 횡성)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움직임은 현 교육계의 분위기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전국에 있는 한교선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로서 강원도 지역을 주시하고 계시고, 강원지방회 선생님들을 초청하



여 다음세대 복음화의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청하여 듣고 계시기도 합니다.

불꽃같은 다음세대를 일으킬 기독학생 자율동아리

한교선 강원지방회는 학교 안에서 기독학생자율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핵심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 양육하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은 이 학생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선교회의 활동 방향입니다.

지난 2016 상반기 한교선 강원지방회 연찬회에서는 기독학생자율동아리를 운영했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자살, 장애로 인한 상처, 우울증, 일탈행동, 교실붕괴, 왕따문제등 학교현장의 위기 문제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시작된 기독학생자율동아리는 2015년 창립 당시 도내 7개 지역, 24개가 개설되었고, 2016년 현재에는 2배 정도 확산되어 총 10개 지역, 43개 기독학생자율동아리,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중 상당수는 복음을 처음 접하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역교회에 안착하여 기쁘게 섬겨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대한민국 학교 전체에 번져가는
복음의 불길을 꿈꾸며

올해 12월에는 춘천지역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도내 기독학생자율동아리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1년의 동아리 활동을 나누며 축제의 자리를 갖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교선 강원지방회는 선생님들의 자발적 후원과 섬김으로 방학마다 기독학생자율동아리 연합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 캠프는 10개 초·중등학교(35명, 1박2일), 제2회는 17개 초·중등학교(47명, 1박 2일), 제3회 캠프는 지원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져서 18개 초등학교(90명), 12개 중등학교(50명)로 분리하여 2박 3일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 이루어질 제4회 기독학생자율동아리 연합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원지방회에 붙이고 계신 이 복음의 불길이 대한민국 학교 전체에 번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춘천(春川)을 천국의 봄, 춘천(春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춘천성시화의 염원(念願) 속에 한교선 춘천지역회 기독교사들이 함께 씩어지는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서원혁 교사 (홍천 남산초등학교)
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서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김복동
Salvation 2015-14
160×130cm
oil on canvas & wood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1610,125×130cm 로마보르게제미술관)은 많은 해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림 속 다윗의 얼굴과 골리앗의 얼굴은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을 모델로 그린 것이다. 그림 속 다윗의 표정은 승리와 환희에 찬 것이 아니라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있고 다윗의 손에 들려진 골리앗은 평생 자신의 천재성만을 믿고 교만에 찬 슬픈 자화상으로 그려졌다. 순수했던 다윗도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겪으며 골리앗처럼 변해갈 자신을 예감한 것일까.

그러나 끝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순수한 어린 소녀처럼...

취재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익숙한 추수감사절, 생각해 보는 추수감사절

매년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은 각 나라마다 지내는 날짜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는 11월 넷째 주에, 캐나다는 10월의 둘째 주에,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킨다. 드리는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매년 듣지만 조금은 낯선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이야기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헨리8세의 이혼과 재혼문제로 로마 천주교와 결별하게 된다(1534년). 그 출발은 좋은 동기였을까?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동기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아들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헨리 8세는 아들을 못 낳았던 왕비와 결별하고, 왕비의 시녀와 결혼을 강행한다. 이를 문제 삼았던 교황과의 반목, 헨리 8세의 권위에 협조하는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교로 따로 세워졌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청교도그룹과 영국 성공회 사이에 많은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당시 영국 국왕은 성공회 외에 청교도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신앙적 자유를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영국 탈출을 꿈꾸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 신대륙 아메리카가 첫 번째 시도 대상은 아니었다. 1608년, 청교도들은 먼저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된다. 하지만 11년간의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은 최악이었으며,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에 청교도들은 생각을 바꾸었고, 아메리카행을 재결의 하게 된다.

1620년 8월 5일, 신앙적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위해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게 되는데, 함께 가는 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Mayflower)만이 아니었다. 그 외 스피드웰호(speedwell)라는 배가 한 척 더 있었다. 하지만 얼마가

지 못해 스피드웰호(speedwell)에 물이 새어들어 옴으로써 출발은 실패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9월 6일, 180여 톤의 작은 배, 메이플라워호(Mayflower) 단독으로 102명의 청교도들을 싣고 출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였을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원래의 목적지는 제임스타운(Jame Town)이라는 곳이었는데, 항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66일 만에 도착한 곳이 멀리 떨어진 뉴플리머스(New Plymouth)라는 곳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항해가 두 배 이상 길어져 그들은 금방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다. 뉴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반 이상이 첫 겨울을 맞아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다. 이렇게 선구자들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인가보다.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그토록 바라던 더 나은 삶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살아남은 53인은 새로운 땅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토양이 달라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종자들과 농사법은 거의 쓸모가 없었다.



청교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잘라 요새를 만들고, 가지고 온 대포도 설치했다. 그들은 토착민인 인디언을 경계했으나 인디언들은 오히려 우호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낯선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살아남는 데에는 이 인디언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기록에 보면 1621년 3월 16일 사모세트(Samoset)라는 영어를 아는 인디언이 캠프를 찾아왔다. 며칠 후에는 스콴토(Squanto)와 호바모크(Hobbamock) 라는 인디언이 찾아와서 옥수수 재배법, 물고기를 잡는 법, 기타 생존법을 가르쳐주었다. 스콴토는 1614년 영국 노예상인에게 잡혀가 스페인의 말라가까지 팔려갔다가 탈출하여 1619년에 집에 돌아온 인디언이었다. 후에 호바모크(Hobbamock)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청교도의 사랑을 받았다. 1621년 가을,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둔 청교도들은 90명의 인디언 전사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와 음식축제를 벌인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임시 국경일로 정한이래, 미국은 공식적으로 1941년부터 11월 네 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삼아 그

주말까지 추수감사절 연휴를 즐기는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하지만 청교도들과 인디언사이의 좋은 관계는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비극으로 변했다. 일찍이 청교도들과 인디언 추장인 마사소이트 추장은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영국에서 계속 건너오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땅이 더 필요했고, 인디언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례처럼 서로 양보의 미덕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디언들을 좀 더 배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실제 진행은 매우 슬픈 과정이었다.

그렇다고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사가들이 지적하듯 청교도들은 일방적으로 인디언들을 배신하고 학살한 것일까? 꼼꼼히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1675년, 마사소이트 추장의 아들 메타코멧이 먼저 아버지가 청교도와 맺은 평화조약을 50년 만에 파기한다. 그리고 인디언이 먼저 청교도 정착촌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게 된다. 14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을 통해 백인 600명이 죽었고, 인디언들은 더 많은 희생을 당하여 4,000명이 죽었다. 그 지역 인디언의 60%가 넘는 수치였다. 추장 메타코멧은 학살당하고 시신이 여덟 조각으로 나뉘어졌다. 아내와 아들도 버뮤다에 노예로 팔려간다. 아이러니하게도 1620년 102명의 청교도를 실은 메이플라워호(Mayflower)가 도착한 해안에서 56년 후인 1676년에 180명의 인디언 노예를 실은 노예무역선 씨플라워(Seaflower)호가 카리브 해를 향하여 떠났던 것이다.

더 좋은 추수감사절을 위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웃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인디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이웃이었다. 초기 청교도들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인디언 전사 90명을 추수감사절 잔치에 초대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할까? 아니다. 오히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리려면 이웃과 함께 하는 절기로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절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 춘천의 400개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진 헌금 전체를 교회수입으로 잡지 않고, 각각 교회와 가까운 주변 이웃을 초청하여 복음을 나누고, 이웃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든지 말이다.

글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예향

복음에 대한 탁월한 변증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순교하기 전, 불타는 마음으로 쓴 전도 소책자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이치로 생각하면 믿을 일이 많다. 유복자가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도 제 몸이 생긴 것을 헤아리면 아버지가 있는 줄을 알 것이요, 사람이 자기 조상을 보지 못해도 그 자손을 보면 조상이 있는 줄을 믿을 것이요, 시골 백성이 임금님을 뵈옵지 못하여도 나라가 있고, 정사가 있는 것을 보면 임금이 계신 것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고 천당에 가보지 못하였으나 어찌 천지 임금이 없다 하리오."

얼마나 탁월한 변증인가!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다. 지난 번 성시화선교대회의 화두처럼 「전도는 어명」인 것이다.

글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천국의 빵을 얻으라

빵집에 빵이 없고
빵을 만드는 레시피만 수북히 쌓여있고
빵을 굽는 화덕도 먼지로 쌓여있다.

교회내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전엔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는 성도수가
무려 천만명이 넘는다.

교회는 영적인 풍성함으로 성도들이 넘쳐나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림, 글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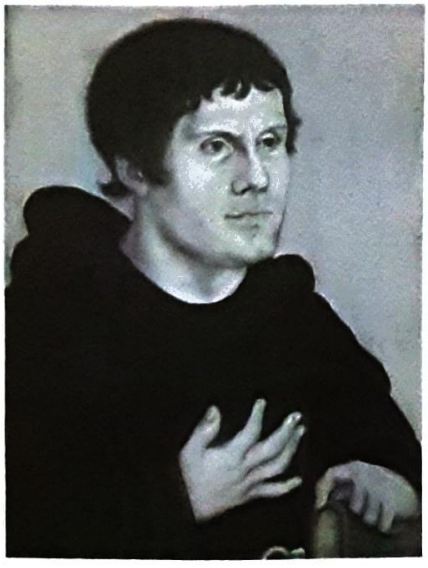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길을 따라 - 여섯번째 이야기

여기 제가 서있습니다

글 김현배 목사 (베를린 비전교회)

외로운 투쟁에 선 루터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성교회에 붙여진 95개 논제는 약 몇 주일만에 독일 전체 퍼졌다. 이 논제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터의 용기에 갈채를 보냈다. 루터의 사상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거세게 일어났다. 로마 교황청에 완전 비상이 걸렸다.



▲ 마르틴 루터

우선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설교자들은 공개적으로 루터를 이단시 하면서 추적하기 시작했다. 또한 위대한 신학자인 요한 에크(Johann Eck)의 공격과 선동으로 인해 결국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로 소환되었다.

그곳에서 루터는 독일의 추기경 카예탄(Thomas Cajetan, 1496-1534년)의 심문을 받았다. 추기경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보다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루터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루터와 추기경이 서로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싸웠다. 이때 추기경은 로마로부터 루터를 체포하라는 비밀 지령을 받게 되며, 이 정보를 입수한 루터는 친구들의 충고에 따라 한 밤중에 아우크스부르크 도시를 빠져 나온다.

당시 황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던 비텐베르크의 선제후 프레더릭(Frederick)은 루터가 로마에 있는 이단 재판소에서 심문을 받아야 하는 명령서를 철회하고 독일 땅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루터를 도왔다. 그 선제후는 잠정적이지만 루터를 계속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막강한 영주들이 로마의 위협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제 루터는 홀로 외로운 투쟁의 길을 걸어가는데 험난하기만 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가까이 있는 수도회 형제들이나 비텐베르크 대학 동료들이 루터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희미하지만 마지막에는 화형을 위해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자신이 서 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스쳐 갔을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논쟁

"십자가 신학"

루터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로마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루터 자신은 면죄부와 신학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루터의 면죄부 비판과 관련하여 벌어진 첫 번째 논쟁이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부 건물에서 열렸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와 논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신학을 '40개 조항'으로 만들어 정리했다. 루터 당시 신학의 주류는 '영광의 신학'이었다. 이 논쟁에서 루터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지지하였다. 그는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게 된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 루터가 승리함으로 인해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었다. 마르틴 부처(Martin Butzer)를 비롯하여 앞에 나서기를 주저했던 비텐베르크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 등 여러 사람의 동조자를 얻었다.

라이프치히 논쟁

"교회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

논쟁으로 유명해진 루터는 자연이 계속적인 논쟁에 연루되었다. 개혁을 위한 치열한 한판 싸움인 중요한 논쟁이 1519년 6월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발생하였다.

그때 루터는 로마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인 요한네스 에크(Johann Eck, 1486-1543)와 논쟁했다. 핵심은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다. 에크는 교황과 주교들, 공의회, 종교회의들, 교회 전통의 권위만을 내세웠다. 베드로 후계자인 로마 감독들이 곧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로마 교황의 신적 권위를 주장했다.

반면에 루터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황의 통치권이 성경에는 전혀 없는 개념이며, 공의회 결정도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교황과 공의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황의 최고(지상)권을 믿는 것은 불필요한 일임을 강력히 반박하였다.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루터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곳에서 루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는 교황이나 공회가 아니라 성경만이며, 성경만이 교회의 최고 권위가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루터는 신구약성경 66권 이외의 외경과 가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교회는 외경까지를 성경에 포함시킨다. 결국

에크는 루터에게 존 후스(Hohn Huss)와 같은 이단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교황교서와 교회법전을 불태워버린 루터

"거룩한 불"

추기경 카예탄(Cajetan)과 엑크가 루터 파면에 앞장섰다. 교황은 루터의 반박문 중에서 41개 항목들이 이단적이라고 정죄하면서 1520년 6월 15일, 교황의 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Exsurge Domine)를 발표하였다.

이 칙서가 발표된 후 60일 이내에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만약에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단으로 선포하겠고 곧 파문에 처해질 것이라고 위협받았다.

이 교황의 교서는 10월 10일 루터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루터는 교황의 기소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교황청의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명령받은 60일이 지났지만 물러서지 않은 루터는 이 교서를 "저주받은, 뻔뻔스럽고 악마적인 교서"라고 불렀다.

12월 10일, 오히려 루터는 교황이 내린 교서와 모든 교회법전을 불 속으로 던져 버렸다. 루터는 거짓 사상을 불살라버렸다. 교황교서와 교회법전을 불태워버린 루터는 강의하기 위해 다시 비텐베르크로 왔다.

수 많은 학생들 앞에 선 루터는 지옥과 순교의 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개혁의 선봉에 선 루터에게는 순교조차도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루터는 점점 더 담대해지고 거세지며 확고해져갔다. 루터는 천 년이 넘도록 든든히 버텨오던 가톨릭교회의 절대 교리들을 향하여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서슬 퍼런 황제의 권력 앞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보여준 영적 파워의 힘은 엄청났다. 루터는 진리에 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기 때문에 흑과 백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러한 루터의 영적 파워는 결국 성경의 힘이었다. 루터는 영적전쟁터에서 움츠러들거나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오늘날 약해진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루터와 같은 영적파워이다.

보름스 의회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결국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1521년 1월 3일에 파문을 당했다. 로마 교황청은 독일 의회에 압력을 넣어 루터를 정죄하여 처형하도록 독촉하였다.

이에 대해 루터의 보호자였던 프리데릭 현제는 루터의 공개적인 심문이 독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신성로마황제 찰스 5세는 루터에게 보름스 의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다.

1521년 4월 17일-18, 독일 보름스 대성당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루터는 심문을 받게 된다. 루터의 친구들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애걸했다. 이때 루터는 두

려워하는 친구들에게 "후스는 화형 되었지만 진실은 타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루터는 친구 슈팔라틴에게 "지붕위에 기왓장들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여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라고 전했다.

4월 16일 아침 10시, 루터와 비텐베르크 동료들은 덮개 없는 마차를 타고 보름스에 도착하였다. 루터는 수도사의 옷을 입고 있었다. 마차에서 내리면서 루터는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그때 회의장 주변은 루터를 격려하기 위해 모여든 5천여 명의 독일 시민들로 붐볐다. 시민들은 외쳤다. "남자답게 싸워라. 죽음을 무서워 말라.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몸뿐이다.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했다.

루터가 하루 밤을 머문 보름스는 흥분과 기대로 열광의 분위기였다. 첫째날 4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루터는 젊은 황제와 선제후들, 교황의 특사들, 대주교, 주교, 백작, 영주들, 여러 자문들, 제국 각 도시의 대리인, 외국 법정의 대사, 각 계층의 고관 등, 즉 교회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잘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 섰다.

트리어 대주교의 법률고문인 요한 폰 에크(Johann von Eck)는 황제를 대신해 라틴어와 독일어로 질문을 하였다. 제국의회 앞에 불려 나온 루터는 긴 책상 위에 자신의 책 25권 정도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에크는 두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책들은 당신이 쓴 책인가?", 또 "그 책에서 쓴 내용의 사상을 그대로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철회할 것인가?." 즉 그 저술들을 다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때 루터는 그 책들의 저자가 자신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충 처리할 수 없어서 답변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하였다. 황제는 루터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었다.

다음날 4월 18일 목요일, 루터는 전날보다 더 자신있어 보였다.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강하게 세웠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횃불이 켜지고 루터는 보름스 의회 법정에 들어섰다. 에크는 전날 던졌던 질문을 약간 수정하여 그 책들을 철회하겠느냐고 물었다.

마침내 터는 입을 열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루는 위대한 선언을 하였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이 책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황권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폭정과 사악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책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

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 루터가 출두한 지점에 세워진 기념 표지석

루터가 출두한 지점에 새겨진 기념 표지석

1521년 마르틴 루터의 재판이 열렸던 건물의 터, 바로 그 현장에 세워진 하일스호프공원(Heylshofgarten)이 있다. 이 공원 내에는 루터가 소환되어 출두한 지점의 바닥에 기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1521년,마르틴 루터가
여기 황제와 제국 앞에 서 있다"

보름스 칙령

로마 교황청은 할 수만 있었다면 존 후스처럼 루터도 화형에 처하고 싶었을 것이다. 황제는 열렬한 교황주의자인 제롬 알렉안더(Jerome Aleander, 1480–1542)에게 이단자 루터를 정죄하는 포고령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5월 8일에 완성된 포고령에 황제는 5월 26일에 서명했다. 이어 독일 제국의회는 1521년 5월 26일 보름스 칙령을 공포하였다.

마침내 루터는 국가와 교회로부터 위법자로 정죄되면서 파문을 당했다. 그에 대한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하였다. 그의 모든 책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불로 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그의 책을 인쇄하거나 판매하거나 읽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 되었다.

또한 루터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불법자로 규정했다. 루터를 돕거나 소식을 주고받는 일도 금지되었고 루터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소유를 몰수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루터는 교황과 황제, 대학들로부터 사회의 이단자로 찍혀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루터는 정말 용기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1천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 오던 황제의 권위와 교리 그리고 교권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무릎 쓰고 개혁에 헌신하였으며,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사람의 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기 로마 가톨릭교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기독교의 근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며, 사도적 신앙과 예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다. 즉 성경으로 되돌아가며,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며, 신약 성경에 나타난 표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구호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중요한 영적 모토들이었다.

볼로그다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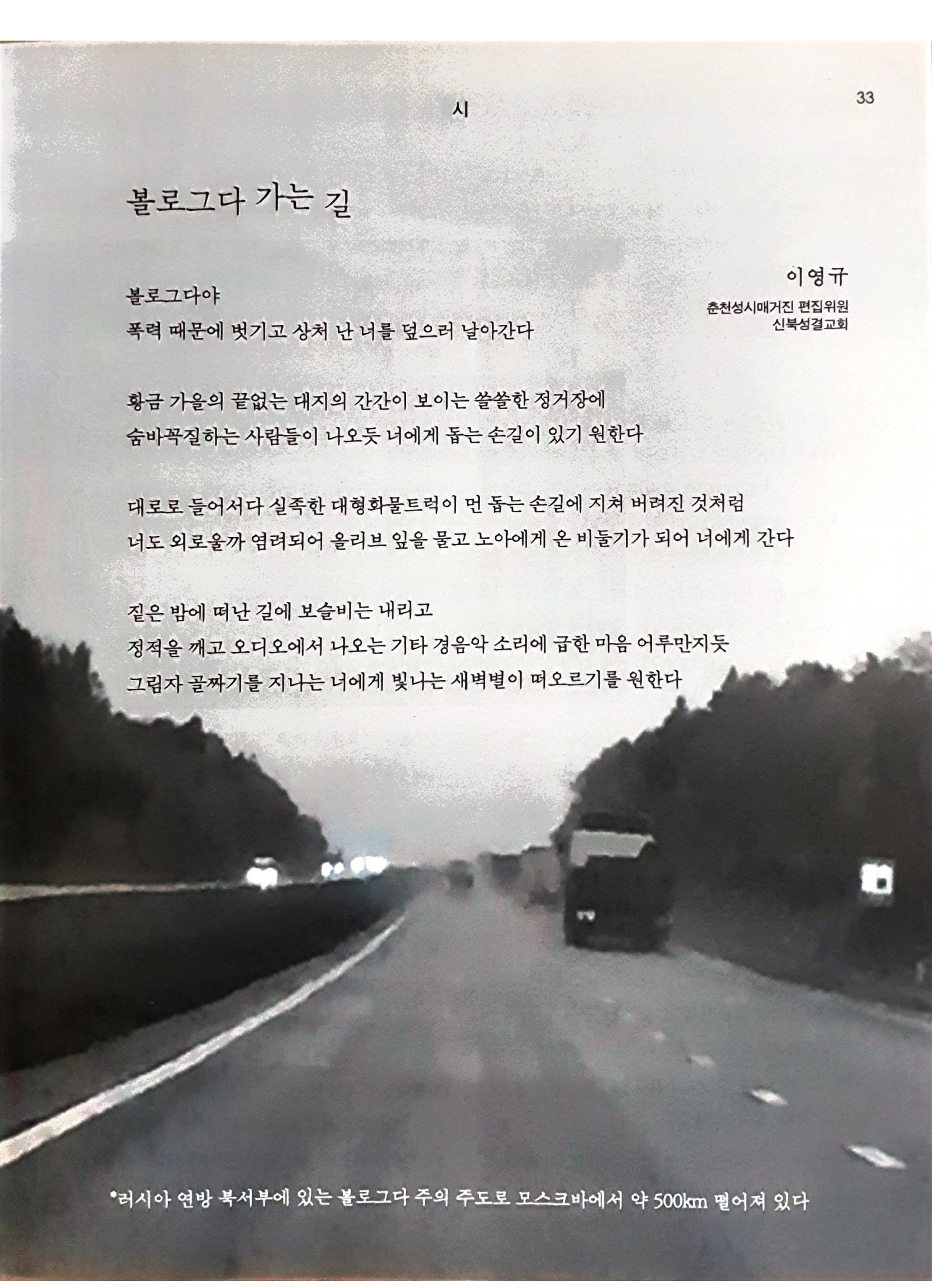
이영규
춘천성시매거진 편집위원
신북성결교회

볼로그다야
폭력 때문에 벗기고 상처 난 너를 덮으러 날아간다

황금 가을의 끝없는 대지의 간간이 보이는 쓸쓸한 정거장에
숨바꼭질하는 사람들이 나오듯 너에게 돕는 손길이 있기 원한다

대로로 들어서다 실족한 대형화물트럭이 먼 돕는 손길에 지쳐 버려진 것처럼
너도 외로울까 염려되어 올리브 잎을 물고 노아에게 온 비둘기가 되어 너에게 간다

짙은 밤에 떠난 길에 보슬비는 내리고
정적을 깨고 오디오에서 나오는 기타 경음악 소리에 급한 마음 어루만지듯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는 너에게 빛나는 새벽별이 떠오르기를 원한다



*러시아 연방 북서부에 있는 볼로그다 주의 주도로 모스크바에서 약 500km 떨어져 있다



춘천 CCC 대표로 사역하는 안장렬목사

그동안 춘천 CCC를 섬기던 이갑용목사님이 책임간사로 섬기고, 춘천 CCC 대표로 본부에서 사역하던 안장렬목사님이 올 1월 초에 부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감과 사역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Q 목사님은 춘천에 오시기 전에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저는 춘천에 오기 직전에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춘천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왔으니 이제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제가 춘천에 오기 전에는 본부에서 행정 국장으로 10년 정도 섬겼고, 체제가 바뀌면서 재정팀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광주에서 학교를 졸업하

고 상경했다가 다시 순천에서 책임간사로 지내다가 95년도에 싱가폴에서 신학연수를 하고 99년부터 CCC 행정 국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사, 재정, 기획, 대표 보좌 등의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Q 춘천으로 오신지 10개월이 되셨는데, 춘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현장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만드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사역에 직접 뛰어들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 학생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9명의 간사들이 있는데, 직접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소통을 하면서 사역 방향을 정하다보니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에 와서 참 새로웠던 것은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성시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웠고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캠퍼스 학생들의 상황은 춘천이나 강원도의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8: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외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사역 패턴의 변화가 요구되기에 고민도 많았습니다. 채플도 금요일에 드렸던 것을 목요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이미 많은 학생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목요일로 옮기면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채플 참여 인원이 늘고 있다고 간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개월간 지내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대표가 바뀌는 상황이면 어수선하기 쉬운데, 3,4학년의 순장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해 주는 등 리더쉽을 잘 발휘해 주어서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가질 만큼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사역자가 잘 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Q 요즘 삼포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고민이 많은데, 요즘 학생들의 모습이나. 특별히 기독 청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춘천의 환경이 주로 가정을 떠나와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대학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자 하는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얽매이기 싫고 자유롭고 싶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외롭고, 대학문화를 즐겨봤지만 만족함이 없는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들인데,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전해줌으로 주님을 전해주는 학생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도 보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마음을 얻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비신자인 청년들이 복음을 접하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과정이 길고, 벽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진도도 하지만 관계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중요한 타임이 있습니



다. 학기 초에는 신입생 환영회로 친구초청을 하고, 5월에는 강원대에서 하는 문학과 강연의 밤을 통해 친구 초청을 하고, 여름에는 수련회에서 새 친구반을 구성해서 복음을 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가을에 친구야~라는 관계전도 프로그램인데 게임도 하고, 감동적인 영상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접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새롭게 주님을 만나 등록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Q 향후 학생들을 위한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1년 정도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가지 정도 원칙을 갖고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큐티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을 학생 때부터 몸에 베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에 나가면 더 바쁜데 학생 때에 이런 훈련을 받아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자는 것이 출발점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개인이 준비가 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나 공동체에 선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캠퍼스에서만이 아니라 평생 순장을 하며 살도

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는 것입니다.

Q 주중에는 주로 어떤 사역들이 있나요?

매주 목요일마다 전체 모임이 회관에서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격주에 한 번씩 화요일에 모임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능별 순모임은 가기 자유롭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서는 25명의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림대에서도 아파트 몇 채를 빌려서 사랑방으로 생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들보다는 2~4학년 중심으로 순장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벽기도부터 모든 하루를 시작하니 1학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학년이상 순장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Q 지난번에 통일 채플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하셨나요,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제가 춘천에 와서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민망했습니다. 학생들도 큰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인 이관우목사(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와 통일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무엇보다도 경춘공원에 모신 고김준곤목사님도 통일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고, 춘천은 하나원도 가까이 있구요. 자주 논의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통일 채플을 제1회라고 붙였더라구요. 그것은 앞으로 제2회, 3회도 하자는 것이겠지요. 청년들에게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9월은 통일의 달이라고 해서 의미를 담고 싶어서 첫 시도를 했습니다.

Q 다른 좀 더 나누고 싶은 사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청년들이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性), 게임, 술 등에 대한 중독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중독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학생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다음세대를 키우는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모든 대학에 기초과목으로 중독의 문제가 커리큘럼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세상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기준은 너무나 약화된 현실 속에서 학생들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번 엎질러진 물이 된 상태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안고 가기에는 교회는 너무 거룩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강원도의회 신우회

강원도의회 회장이신 오원일장로님(새묵호교회)을 의회 중에 정회 시간에 잠시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신우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원일장로님의 주를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원일 도의장



강원도의회 신우회는 언제 모이나요?

강원도의회 신우회는 형편상 자주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의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신우회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기도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의정에 임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때에는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이때만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의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강원도정을 위해 신경을 써서 일하게 됩니다.

강원도의회 신우회원의 현황이나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신우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때는 아마 4~6대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영월도의원이셨던 고(故)김영재장로님이 계셨을 때가 가장 활발했고 저도 그 때에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전용태 장로님이나, 양인평 장로님이 춘천에 계실 때에 춘천시 기관장모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되어 지내오는 동안 도의회기도회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서로 일정들이 바빠서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연합으로 조찬기도회를 하다가 지난번에 직장인선교회와 연합으로 만찬기도회를 했는데, 참 뜻 깊었습니다.

강원도의원 중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텐데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이중 성격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말했습니다. 불교 기관에서 초대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가기는 하지만 절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절도 하지 않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해서 그런지 5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지요. 믿음을 지키면서 신뢰를 주면 지역 주민들도 알아주더라구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성시화운동본부를 섬기시고 계신는데, 동해시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제가 춘천에서 홀리 클럽 활동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동해에 가서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95년도 당시 동해에는 믿는 기관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원들하고만 하려니깐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해에서 믿는 기관장들이 많지는 않지만 시도는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해 성시화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동해 성시화운동본부가 미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성탄점등예배를 시청 로터리에서 하면서 불꽃놀이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생긴 이래도 아마 처음으로 하게 된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로 4차선 네 곳을 막았는데도 시민들이 항의하지 않고 즐겁게 구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뜻 깊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성탄 트리를 2년 정도 사용하다가 보니 재료에 문제가 생겨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동해시에서 예산을 매년 2천만원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1천만원 정도 마련해서 3천만원 정도 규모로 성탄 트리를 만드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연합회와 함께 준비해서 드리는데, 동해시로서는 참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해시에서는 풍어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풍어예배는 91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6년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원래 뱃놈입니다. 그 전에는 성황당에 다니다가 어머님이 당료, 천식, 고

혈압, 회소기가 걸려서 낳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셨는데, 의사가 나는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하지만 한 곳을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 병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병세가 진전이 있어서 한 달 만에 병이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부터 저를 가만히 놔주지 않으시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시키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네가 세상길로 갈까봐 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깐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학습도, 세례도 아직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차량봉사부터 시작해서 교회학교 교사, 심지어는 사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은 정신없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당시에 87년에 세례를 받고 88년도에 집사가 된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보니 오선생보다는 오집사님이 좋다고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88년 3월에 동해에 어민신교를 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업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기 위해 풍어예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시 복음화율이 8% 정도인데, 어민들은 1%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문화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어업인들과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업인 노래자랑과 친 명 분의 식사를 대접하고, 경품추첨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좀 더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풍어예배로 바꾸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하고, 노래자랑을 하는 형식으로 한 것이 벌써 11번째 했습니다. 이제는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드려서 동해시민노래자랑으로 하려고 합니다. 풍어예배 위원회가 있는데, 4개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역 사회 전체 행사로 치릅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섬깁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지역에서 스폰을 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2/3 정도 헌금을 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① 풍어예배가 전국 어촌에서 이뤄지길 소원합니다. 각 어촌에서 풍어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디든 가서 나눌 것입니다.

② 도의회가 기독인들이 많이 당선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③ 동해시 찬양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내가 살고 있는 동해시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서 모든 교회마다 부흥하길 소원합니다.

⑤ 영동지역 장로연합회에서 친선체육대회를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취재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四代가 함께 한 교회서 예배하는 가정이야기

유근완 장로

(순복음 춘천교회 원로장로)

핵가족시대에 증손자로 부터
증조할아버지가 한 교회, 한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가족을 함께 만나뵈었다.
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자고 해서 근처에 있던
순복음춘천교회(이수영목사 담임)를 다니게
되고 지금까지 4대가 함께 출석하고 계신
유근완장로, 아들 유동열장로,
손자 유재홍집사와 자부 박영자권사를
만나 뵈었다.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안경 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샤워하고
새벽기도 다니시는 유근완장로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감탄하시는
유근완 장로님이셨다.

장로님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가정인데 큰 며느리 박영자권사 덕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바뀌었지요. 처음에는 다락방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면 한다는 확실한 성격이라서 이왕 신앙생활하려면 새해 첫 주부터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70세 되던 해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년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큰며느리 박영자권사의 믿음이 시집을 복음화하고, 남편과 시부모님, 형제들을 구원하는 횃불이 되었다고 한다.

순복음춘천교회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몇 분이나, 어떤 자녀들이 다니시는지요?

"초창기에는 23명 정도 다니다가, 현재는 1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손자며느리, 증손자, 증손녀를 비롯하여, 외손자가정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를 할 때에는 제일 많은 참가인원이 가족찬양을 드리기도 했었다고 한다.

어떻게 가족구원, 복음화가 가능하게 되었는지요?

"큰 며느리인 박영자권사가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형제들을 집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모든 형제들을 모아서 가정예배들 드렸습니다. 3남 2녀의 5남매 형제들이 큰 며느리인 박권사의 권유에 잘 따라주었고, 그 때 모여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기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어느 날 시아버지의 큰 결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로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셨나요?

"가정예배를 2년 넘게 드리는 동안 이제 제사문화를 끊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마지막 제사를 드리던 날, 시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도 제사를 그만하고 다음부터는 추도예배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박영자권사) 그 이후로 모든 제사를 끝내고, 추도식으로 바꾸고,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이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작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홍권사님의 역할이 커서 형제들의 우애와 사랑, 질서를 잘 세워주시고,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가정이 질서 있게 잘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셨다고 하였다.



장로님께서 기쁘게 신앙생활하시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새벽기도와 감사하는 기도생활, 말씀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다니면 기쁨이 가득해요. 즐겁습니다. 작년에 부인 권사가 떠난 이후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서 사진을 치우라고 했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니, 이제는 얼마나 즐거운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지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즐거운지 참 행복합니다.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웃음이 만면에 가득한 얼굴로 말씀해 주셨다. "저는 지금도 안경을 안 쓰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잘 보여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도 즐겁고 기쁩니다."

장로님께서는 특별한 새벽기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새벽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 3시 30분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집에서 40분정도 기도하고 교회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목사님, 성도를,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부지런히 해야 40분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13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저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라 봅니다."

유근완 장로님께서는 순복음춘천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기드온 춘천지부 대표로도 봉사하면서 성경 보급사역에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군부

대를 직접 다니면서 성경을 배포하고, 후원금 마련을 위해서 교회들을 순회하는 일도 쉬지 않고 해오셨다. 새마을금고를 처음 시작하여,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례와 판공비를 모아 장학금을 주기도 하였다고 하셨다. 서예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시작한 서예교실이 지금까지 이어져 시민들이 서예공부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매일 서예교실을 방문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가족모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도 가정예배가 있으신가요?

"5남매 가정이 모이는 가정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근완장로님께서 막국수를 좋아하셔서 다같이 모여서 막국수를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은 명절 때 예배 후에 아버님께서 한 사람씩 안아주고, 돌아가면서 모두 안아주는 특별한 순서를 가집니다.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귀한 기억으로 남고 있는 거 같아요"(박영자권사)

가훈이나, 장로님께서 자녀들에게 즐겨하시는 성경말씀은?

"저는 성령충만이란 말씀을 좋아합니다. 서예를 배운 뒤에 '성령충만' 이란 말씀을 즐겨 사용하고, 작품을 만들어 가정마다 나누어 주었지요"



'성령충만!' 교회 예배실과 자녀들의 가정에 액자를 걸게 하여, 신앙생활의 비결이 성령충만이라고 되새겨 주고 있다고 한다.

늦게 믿었지만 온 식구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사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손자를 위해 훌륭한 목사님이 되길 매일 기도한다고 하셨다.

유근완장로, 큰아들 유동열장로, 박영자권사, 큰손자 유재홍집사와 8세의 증손자, 온 가족이 한 교회서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셨다. 믿음의 대를 이어 훌륭한 목회자와 자손들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가정, 4대가 함께 한 교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지요!

취재 이연희 기자 skyphone119@nate.com



채움이 아닌 비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3절

본문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고향 나사렛과 그 인근에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직업=목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축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분의 견해에 따르면 '나사렛과 그 인근에서 과연 목수란 직업이 일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마을은 목수가 목재로 쓸 만한 나무가 흔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다루기 쉬운 석회암은 풍부하여, 지금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을 그린 그림을 보면, 하나같이 네모반듯한 석조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따라서 추론해 보건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기보다는 석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 목수, 그리고 영어성경에 카펜터(carpenter)라고 되어있는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텍톤(Tekton)이란 단어로 표기 되는데, 이는 '쌓다', '구축하다'는 뜻이니, 목수보다는 석공일 것이라는 이 추론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나사렛이란 변두리에서 석공이라는 전문직종이 따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냥 집짓는 일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니 예수님은 집짓는 이, 또는 건축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확증되지 않은 한 건축가의 추론이지만, 건축가 예수님을 상상해 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으실까? 예수님은 어떤 건축을 추구하셨을까?

제자들이 헤롯성전에 대해 예수님께 평가를 구했을 때,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막13:1)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막13:2) 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진실 없는 건축,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분께 기도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오직 인간의 탐욕과 정치적 야욕으로 지어

진 '이 큰 건물들'(막13:2)을 보시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건축물이라고, 다시 말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흉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막11:17).

예수님은 겉보기만 그럴싸한, 남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행함 없이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인간의 모든 위선의 행위들을,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마7:26)이라고, 진실 없는 건축에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훌륭하고 지혜로운 건축가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마7:24)과 같다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건축이라고 평가하신 집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집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축 작품을 남겨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기념비적 작품이라면 자신의 몸으로 지어내신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다 비워야만 가능한 작품이죠(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십자가를 생각해 보건데,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은, 중세의 저 우뚝 솟은 고딕의 첨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시대의 카타콤베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지하무덤, 그 낮은 자리를 비워내 만들어진 소박한 공간, 그 곳에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실하고 좋은 건축이란 높이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에 맞게 잘 비워낸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속임으로 시절의 유행을 쫓아, 이것저것 화려한 인테리어나 겉치장으로 잔뜩 멋을 부려 비움 대신 잔뜩 채움 쪽으로, 명목상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면,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흉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형상을 그 분의 뜻에 맞게 잘 드러내려면, 반드시 자신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는 말씀을 삶으로 건축해 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은 채움이 아닌 비움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글 전동훈 목사 (가일리교회)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자

글 일본 이시노마끼 오아시스교회 조영상 선교사

세 가지 색깔의 교통신호등과 이발소의 회전 광고등은 세계 어디서나 공통의 표시이다. 아울러 십자가 첨탑은 모든 기독교의 심볼이다. 십자가를 떠난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신자들을 바르게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며 최고의 은혜다. 한자로 은혜의 혜(恵=†+思)자는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몸에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교회건물에 높고 크게 장식하기보다 우리의 가슴과 일상생활에서 자기희생의 십자가를 장식하고 살아가야 하겠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아실현, 성공, 번영, 정상을 목표한다는 명목하에 마음을 빼앗기고 각종 이기주의와 탐욕과 자기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십자가와는 동떨어진 변질된 신앙인이 되고 있다. 십자가를 상실한 기독교는 각종 신비주의와 구복 신앙을 만들어 내고 더 나아가 이단집단과 이기주의적인 종교인들을 만들어 낸다. 십자가 없는 신학은 진리를 떠난 학문이고, 주관은 독선이 되고, 열정은 욕심이 되며, 자신감은 교만이 되며, 사랑은 집착이 되며, 은사는 비교 정죄의 도구가 되고, 목회는 권위적이 되며, 신념과 사상은 각종 폭력이 된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 매일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야 하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 중심이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춘천성시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조영상 일본선교사가
16만 도시 이시노마끼시에서 20개 (교회와 선교단체)공동체와 연합하여
도시복음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yongsangjo@hanmail.net (001-81-90-9343-7584)

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12:24) 사도바울도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빌3:10)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14:7)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10:24)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2)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꼬는 인간의 자기중심이 원죄(SIN)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아를 부정하고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 했다. 예수의 부활생명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목사(牧師)는 牧死가 되고, 사모(師母)는 死母가 되고, 장로(長老)는 葬老가 되고, 선교사(宣教師)는 善教死가 되고, 전도사(伝道師)는 伝道死가 되고, 권사(勧師)는 勧死가 되고 집사(執事)는 執死가 되고, 교사(教師)는 教死가 되고, 간사(幹事)는 幹死가 되어 예수님의 자기희생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란다.

주님의 십자가는 역사의 초점이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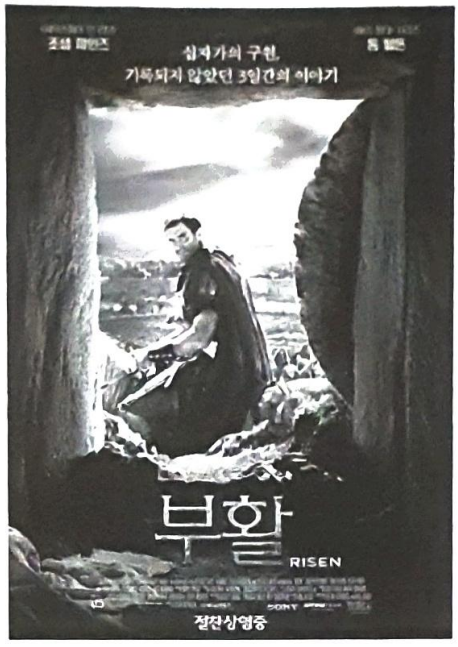
부활

약 20여년 전 로버타 켈스 도어라는 여류소설가가 쓴 '다윗과 밧세바' 라는 소설을 읽은 기억이 새롭다. 다윗의 중대한 실족을 다룬 이 소설은 성경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 더욱 굳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이끄는 힘을 지녔다. 단지 소설이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더욱 실제적인 사건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전개로 흥미를 끌었다. 이처럼 성경의 사건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스토리를 가미하여 그 사건의 의미와 메시지를 보다 깊고 절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행간을 읽는다 라고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존의 담론에 더욱 은혜를 더하고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러한 행간의 의미 및 드러나지 않는 사건과 스토리로 역사의 현장에서 겪는 참된 믿음의 메시지를 읽게 하는 영화가 나왔으니 바로 지금 소개하는 〈부활〉이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 살아나신 3일간의 기록을 로마의 호민관의 관점에서 다룬 것인데 그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도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役事)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십자가 기적' 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기독 서사 대작이라고 소개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소재로 한 작품은 1927년에 제작된 세실 B. 데밀 감독의 무성 영화 〈왕중왕〉을 비롯해 1965년 〈최고의 이야기〉, 2004년 멜 깁슨의 연출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등이 있다. 영화 〈부활〉이 앞선 작품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독교인이 아닌 신을 믿지 않는 로마군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기적을 그려냈다는 점이다.

영화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처형에 앞장섰던 로마군의 호민관 클라비우스(조셉 파인즈)와 부관 루시우스(톰 펠튼)가 예수의 죽음 사흘 후 그의 시체가 사라지자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사라진 예수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글라비우스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색을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갈수록 점점 휘감아오는 불가항력의 능력과 사랑 앞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가며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데.....

당 영화는 흥행뿐 아니라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리뷰 열풍이 이어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후 예수님의 삶을 다룬 최고의 걸작이 탄생했다!"(레카투스매거진), "〈부활〉은 영화가 마침내 성경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보여주는데 성공했다!"(PJ 미디어), "강력하다!"(폭스 13 KSTU), "장엄하다! 웅대하다!"(엔터테이너, "매우 훌륭하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십자가 사건!"(에릭 브라이언트 목사, 오스틴 게이트웨이 교회), "매우 의미 있는 작품! 신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크리스 박스 & 도레나 윌리엄슨, 스트롤 타워 바이블 교회), "꼭 봐야 하는 영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햄크 에버스, 오렌지 가톨릭 재단),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는 이들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에릭 브라이언트 목사, 오스틴 게이트웨이 교회) 등 해외 언론과 평단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한다.

지난 봄 부활절을 전후하여 개봉되었지만 메가박스에서만 상영하게 되어 춘천에서는 볼 수가 없어 유감이다.

글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중독(Addiction)이란 무엇인가?



글 이병일 원장 (우리소아과의원, 나눔성결교회 장로)

중독이란 ?

중독은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기분 전환성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어떤 행위를 참지 못하고 행하고자 하는 정서적 욕구로써 신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건강이나 재정 법적인 면에 악영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흥분 도달 혹은 금단 증상 탈피를 위해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강박적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중독되었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열중하다가 몰두하는 것으로 흔히 부정적인 행동에 적용되긴 하지만 좋은 활동(운동 등)도 포함 시킬 수 있다. 중독의 어원은 라틴어 addicene 로 동의하는 것 양도하는 것 고대에 잡혀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중독의 공통점

① 중독은 우리를 진실한 감정에서 떼어놓아 일종의 도피를 제공하는 목적에 이바지한다.

② 중독은 중독자를 완전히 지배(통제)하며 그 지배력은 모든 논리나 이성을 능가한다.

③ 중독은 언제나 쾌감을 포함한다.(자극, 흥분, 해방감 혹은 그 밖의 어떤 감정)

④ 중독은 파괴적이고 불건강하다. 중독 물질이나 행동이 계속하여 쾌감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해를 끼치거나 파괴시킨다. 또한 인간관계를 손상시키며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균형 있는 생활을 깨트린다.

⑤ 중독자는 자신의 중독을 부정(denial)한다. 중독자는 중독이 자신들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력과 파괴력을 부정한다.

⑥ 모든 중독은 심리적 의존을 포함한다. 중독에 있어서 심리적 집착은 쾌감을 자리 잡게하여 쾌감을 추구하는 국면으로 인도한다.

중독의 심리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은 중독을 도덕적인 결점, 의지력 부족 또는 세상을 대면할 능력의 부재, 신체적 질환, 영적인 질환 등 여러 가지로 묘사

해왔다. 거의 모든 인간은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깊은 갈망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이따금씩 온전하게 평화와 아름다움을 체험하지만 그런 순간은 곧 사라지며 시간이 흐른 후에나 되돌아온다. 그렇게 행복의 순간이 사라지면 우리는 슬픔을 느끼며 마음이 아파진다. 우리는 이러한 순환을 받아드리고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도 있지만 잡히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에 대항하여 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행복감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곧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독자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기분의 기복을 조절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기분을 바꾸고 싶어서 그러한 물질과 행동에 의존한다. 중독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행복에 대한 갈망을 통제하고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중독을 암에 비유해서 생각 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암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암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우선 이해해야한다. 모든 암은 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증식한다는 비슷한 과정을 공통적으로 거친다. 모든 중독에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과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함, 행복, 평화를 무작정 추구한다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중독의 종류가 무엇이든 모든 중독자는 원하는 기분변화, 취한상태 또는 각성 포만감 환상을 통한 황홀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나 행동과 관계를 맺는다.

중독을 부추기는 행동

(행위/생활양식)

① 생활양식 중독

ⓐ 쇼핑중독: 월급날 시작되어 알뜰시장->할인매장->백화점으로 옮겨간다.

ⓑ 혼란과 무질서중독: 계획과 준비는 너무 많은 걱정을 가져오므로 닥치는 대로 산다.

ⓒ 미루는 버릇: 게으름, 우유부단, 해야 할 일이 복잡하거나 불쾌할 때 미룬다.

ⓓ 일중독: 신경증적 욕구, 무의식적인 욕구(인정받고자 하는 욕구),큰돈을 만져보기 위해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다.

ⓔ 권태와 회피 중독: 권태의 공허함과 고독을 피하기 위해 스릴을 추구, 바람을 피우며, 도박을 하며,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수집 ,너무 많이 산다.

② 도우려는 중독: 중독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즉 의존하는 사람의 구조자가 되려는 욕구이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능력과 관련시킨다.

③ 사랑중독: 사랑과 로맨스에 대한 중독으로 음욕이 주로 남자에게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관계적인 사랑이나 로맨스에 대한 중독은 흔히 여자들에게 있는 문제이다. 여자들은 친밀감이나 애착에 중독된다. 독신 성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로맨스에 빠지기 쉽다.

④ 조급증(아드레날린 중독):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강박 충동,마치지 않은 일에 대한 강박 관념, 애매한 죄책감, 아드레날린 과소비에 의한 탈진과 우울증, 안절부절 못함, 어쩔 줄 모름, 이리저리 걷기, 손가락 두드리기, 다리 차올리기, 빠르게 껌씹기, 초조감, 짜증남 등이다.

⑤ 성(sex)중독, 음식중독, 종교중독, 인터넷중독, 돈, 명예, 학문, 수집하기, 운동, 모험하기, 분노, TV등.

알려드려요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9947-9631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 (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0-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안내

· 일시 : 월~금,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린이도서관

· 내용 : 어린이 대상 다양한 도서구비 및 독서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033)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⑦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대학교탐방 등)

· 일시 : 월~금, 오후 5시30분~7시30분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033)254-7244(내선3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⑧ 미션얼 in 춘천 : IVF 60주년 프로젝트: 미션얼에서 길을 찾다

· 일시 : 11월 10일 – 11일 · 일정 : 이야기손님: 지성근, 노래손님: 이길승, 김남산

#1 위기의 대학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 10일 오후7시 (문화소통 공간나눔)

#2 미션얼거피브레이크(한국교회와 미션얼운동) : 11일 오전10시 (문화소통 공간나눔)

#3 일상생활의 사역과 삼위일체 신앙 : 11일 오후7시 (효자교회)



춘천콜밴 010-8363-6925 지용근

공항예약 · 소형이사 · 행사준비 · 기업물류

2016 춘천목회자연합회 정기총회



춘천목회자연합회 정기총회가 10월 19일(수) 오전 10시에 신성감리교회에서 있었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정기총회가 2016년 춘천목회자연합회 박찬욱 회장(새순교회)의 사회로 있었다. 회원점명, 사업보고와 감사회계보고가 있은 후, 임원선거가 있었는데, 이날에는 2017년 회장에 손학균 목사(석사감리교회)가 선출되었고, 역대 회장단 모임에서 나머지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마쳤다.

제21차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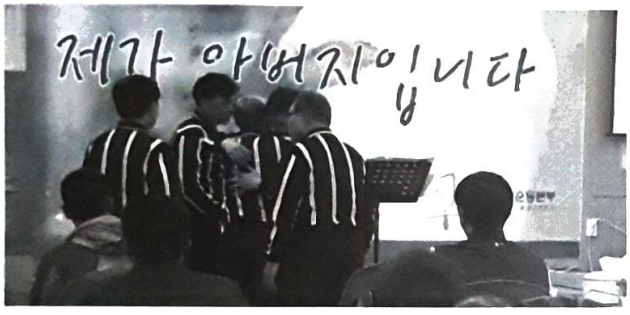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10월 19일(수) 오전11시에 신성감리교회에서 있었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정기총회가 2016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차덕수 회장(강원침례교회)의 사회로 있었다. 회원점명, 사업보고와 감사회계보고가 있은 후, 정관수정과 임원선거가 있었다. 이날 2017년 회장에는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가, 감사에는 직전회계인 김항기 장로(석사감리교회)가 선출되었다. 수석부회장과 나머지 임원은 차후 역대 회장단 모임에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마쳤다.

제30회 춘천연합찬양축제



매년 청소년 장학금 및 아프리카 식수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춘천연합찬양축제가 올해로 제30회를 맞아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10월 29일(토) 오후6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다. 강원CBS 박윤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 개회식에서는 2015 후원 결과보고에 이어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칠목사(신성감리교회)의 인사말, 월드비전춘천지회장 김창환목사(온누리교회)의 축사, 전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 조남진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격려사 후 춘천성시무용단 축하공연이 있었다. 2부 찬양축제에서는 춘천동부교회, 춘천나눔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순복음춘천교회의 찬양팀과 익투스여성합창단이 참여했고, 3부에는 연합성가로 찬양축제를 마무리했다.

춘천52기
춘천두란노아버지학교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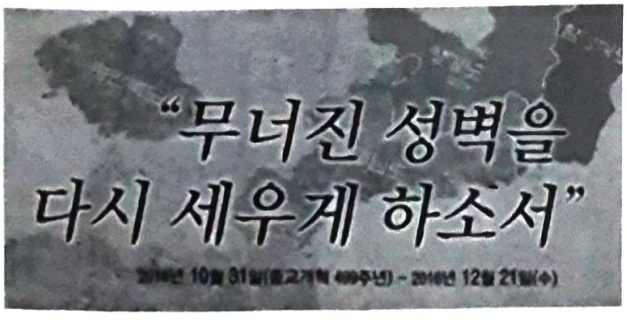
춘천52기 춘천두란노아버지학교가 10월 22일(토) 오후4시에 온누리교회(김창환 목사)에서 5주과정(매주 토요일)으로 개강하였다. 춘천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버지의 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 회복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을 펼쳐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와 남성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학교 비전이다.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정오예배



춘천직장선교연합회(이인균회장)에서는 10월 춘천직장인정오예배를 10월 25일(화) 정오에 동부교회에서 드렸다. 이번 달에는 유니베라 신우회 주관이었고, 말씀선포는 이병철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주향교회)께서 누가!(롬8:31-39)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으며, 예배 후에는 동부교회 전도부의 섬김으로 식사가 있었다. 11월 예배주관은 제일ENG이며, 춘천직장인정오예배는 마지막 주 화요일 정오에 동부교회에서 갖는다.

52일 비상기도대행진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측근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져있고,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사이비의 발흥으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교회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정도로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와같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때에, 훼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을 위한 52일 비상기도대행진을 10월 31일(종교개혁 499주년)부터 12월 21일(수)까지 진행한다. 이를 위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라는 기도제목집을 발간하여 배부하며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있다. 기도제목집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033-256-1260)

제30회기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정기총회



제30회기 춘천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10월 29일(토) 오후4시에 창대교회(이성신목사)에서 있었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2016년 춘천장로연합회 회장 강철주 장로(창대교회)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날 2017년 회장으로는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선출되었고, 나머지 임원은 조정위원을 통해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폐회되었다.

제9회 순복음춘천교회배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 개최



탁구대회를 통한 지역화합의 축제장인 "제9회 순복음춘천교회배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가 10월 28일(금)~29일(토)까지 이틀간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 탁구선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춘천시내 탁구 동호회 등에서 19개팀 약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단식 및 단체전 혼,복식 경기가 진행되었고, 각 부 1,2,3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전달됐다.

취재 이은정기자 graceyh02@hamail.net





프리츠 크라이슬러
(FRITZ KREISLER, 1875-1962 : LIEBESFREUD)
〈사랑의 기쁨〉

이제 가을걷이도 거의 끝나가는 황금빛 들판과 늦가을의 단풍으로 갈아입은 산들의 고운 빛깔로 물들인 개울가와 소양강의 안개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 가을의 고즈넉함을 느끼기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자랐던 크라이슬러는 7세 때 이미 빈 음악원에 입학해서 바이올린의 대가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빠리에서 그리고 1889년에 뉴욕으로 건너가 데뷔하기까지 그의 명성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감미로운 허브차를 마시듯이 물론 〈아름다운 로즈마린〉이나 〈사랑의 슬픔〉에서도 풍겨 나오는 향취와 맛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게 누구나 느끼는 마음일 것입니다. 산책길에 쌓여있는 늦가을의 낙엽을 바라보며 산자락에 앉아서 너른 들판을 바라볼 때나, 카페에서 한 권의 시집을 집어들 때라든지 늘 어디서든지 어울리는 음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곡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나른한 오후에도 듣기 아름다운 곡입니다.

작은 음악회의 연주용으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여럿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레퍼토리로, 특히 〈신지아〉 자매가 연주한 곡을 들으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네요. 좀 더 색다른 연주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티모페이 독쉬체르〉의 상쾌한 트럼펫 연주로도 유명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의 늦은 시간까지 독서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무뎌진 감성과 둔탁해진 지성의 창을 상쾌한 바이올린의 음색이나 감미로운 멜로디를 따라 흐르는 그의 기품 넘치는 가벼운 왈츠에 머리를 끄덕이시면서 힐링의 축복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겨울 준비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 대적자를 경계하면서 새벽의 바람을 가르시고 기도와 말씀의 경건훈련에 더욱 힘쓰시고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으시면서, 맑은 봄내의 강바람과 이른 아침 피어 오르는 안개와 함께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문 늦가을의 화사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 봄내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서른 두 번째 음악이야기였습니다. @DANI

글 김금찬 선교사 (JDM)

후원자 명단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요섭 김은희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동환 박덕남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평숙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성균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임우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미영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건영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시온성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아미교회 엠마오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아가갤러리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설곡산기도원

후원계좌 안내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033.256.1260

KNUH 강원대학교병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를 소개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말기 암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전인적 돌봄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치료 대상자

- 수술, 항암 및 방사선요법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
- 주치의가 완화의료적 치료를 추천하는 환자

입원 절차

입원환자 (담당의사와 상의) → 완화의료팀 협진 의뢰

외래 환자 →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완화의료팀 협진 의뢰 →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전산등록) → 입원 결정

특화된 서비스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조절, 기본간호, 목욕, 스트레칭 체조, 아로마 마사지

영적 돌봄
기도, 상담, 종교별 원목자 연결

사회 경제적 돌봄
전담사회복지사 상담 및 서비스 자원연계

심리 정서적 돌봄
원예, 미술, 다도, 가족교육, 영화상영, 음악회

상담문의: 033-258-9060/9063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대교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